

1. 성추행 교수 퇴진과 학원개혁을 위한 서울대인대회, 추석 연휴 그리고....

23일 성추행 교수 퇴진과 학원개혁을 위한 서울대인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의 추석연휴를 보내고 난 지금 한달
간이나 관악을 떠들썩하게 달구었던 성추행사건이 관악인들의 뇌리에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게 한
다. 그렇게도 무성했던 이런 저런 관악인들의 나름의 주장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우희정씨를 보면서 그리고 9월 한달 관악인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용기있는 지성을
이야기했고 그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다. 지성의 산실로서의 대학을 만들어나가
는 첫걸음을 학원개혁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내딛자고 이야기했다.
대동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에서, 다가올 중간고사를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에서 그리고 추석 연
휴의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에서 '그 사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거야' 라는 말
이 오고가고 있을 것이다.

추석이 지나면서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는 우희정씨가 대학본부를 상대로 고소한 소액청구권 소송이 14일 결정나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이
해를 돕기위해 소액청구권 소송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자. 우희정씨는 92년 5월 28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 1년 2개월을 실제 근무하였다. 그런데, 지급된 급여는 92년 8월 10일부터 93년 8월 31일까지이
다. 우양이 문제삼아 청구한 5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의 급여는 안미정씨의 명의로 발급되었다고 한다. 그런
데, 안미정씨의 증언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즉 92년 6월치 급여와 7,8월분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후임자
에게 지급된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6월치 급여는 4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여기서 92년 5월 28일부
터 동년 8월 9일까지의 급여 2,061,270원 중에 안미정씨가 수령한 40만원을 제외한 16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
해지는 것이다. 화학과 사무실의 주임인 유씨는 7,8월분은 안미정 명의로 발급되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담
당교수인 신교수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며 안씨의 6월치 급여 93만원중 55만원만을 산정한 기준은 신교수와 의
논하여 계산한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우희정씨는 행방이 묘연한 160만원에 대한 소액 청구권을 서울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160만 라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번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신교수와 관련되어 있
는 것이며, 대학원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의 폐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다. 우희정씨 역시
16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물욕에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악인
의 눈 역시 160만원이라는 돈에 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9월 한달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추행 사건은 새로
운 사건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우리들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학원전반의 불합리성과 학원이 안고 있는
모순으로 끓어 있는 상처가 또 하나 터진 것이다.

14일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신교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관악인의 애정어린
관심과 판단이 필요하다. 끓어가고 있는 상처의 일부가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상처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기 전에 치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신정휴 교수의 총학생회에 대한 협박죄 고발이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협박죄
로 총학생회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고 조사대상으로 4인이 올라가 있으며 현재 서초 경찰서에 고발조치되어
있다고 한다. 예상은 할 수 있었던 일일지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우희정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말이 오갔었고 신교수가 보여준 그동안의 태도가 그러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더욱 허탈함을 가중시키고 있는 건 왜일까?

진상조사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의 제자로서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교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신교수의 입장을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묵묵부답 그 자체였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보내온 신교수의 답변서는 우리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총학생회나 대책위는 이 사건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다. 진상조사의 과정에서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교수님이나 대학본부의 입장, 증언을 듣고 이 사건을 관악의
주인인 교수, 학생이 함께 풀어나가야한다는 생각으로 대학본부와 신교수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태 해결의 의
지를 요구하고 계속 시한을 연장해 가며 답변을 요구했었다. 그러한 관악인의 노력에 대해 신교수가 던져준
선물이 협박죄라는 것이다.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서울대인, 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자 지성과 인격의 상징인 교수님이 보인 협박죄로 고
발이라는 모습에서 가슴 한구석을 짝 누르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스승에게 제자로서 답변을 요구하고
결국... 그러나 주시시오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제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그 교수님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그저 어처구니없음에 답답해 할 뿐이다. 조만간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서 진행될 것 같다. 관악 지성
은 어디에서 서 있어야 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